

▶ 달러/원 주간 전망

• 연준 속도조절 기대 충족할까... 양방향 변동성 리스크

서울, 10월3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결과 발표를 전후해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80-1,450원이다.

이번 주 국내외 금융시장은 3일(한국시간) 발표되는 연준 정책회의 결과 따라 큰 출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4연속 사이언트 스텝인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폭넓게 전망되고 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진작에 12월 금리 인상폭에 맞춰져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의 금리 점도표가 제시되지 않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예측해야 한다.

최근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부상한 가운데 12월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50%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 같은 전망 수준을 고려하면 이번 회의를 통한 연준의 정책 스탠스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 파고를 넘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은 다소 완화됐지만 물가 정점을 단언하기엔 관련 지표가 아직 뒷받침되지 못한 데다 경기침체 조짐에도 불구하고 경기 바닥 신호 이전 연준의 고강도 긴축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앞서 반영된 만큼 연준 이벤트 따라 시장의 진폭이 확대될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이 매파적 선택을 강하게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터라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반작용은 작지 않을 수 있다.

역내 수급도 연준 이벤트 결과 따라 쓸림이 발생할 수 있어 금주 환율은 여러모로 변동성 리스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미국의 핵심 경제지표인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가 나오지만 연준 이벤트를 먼저 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목할 지표로는 10월 한국 수출입 잠정치다. 로이터통신 조사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줄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외환 수급의 주된 척도인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로 9월보다 소폭 늘어난 39억달러 상당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한국은행은 10월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월간 외환보유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급감한 바 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0월31일(월)

- ⊙ 통계청: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비전 2050 워크숍 (09:30)
- ⊙ 기획재정부: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 (10:00)
- ⊙ KDI: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2:00)

11월1일(화)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07:30)
-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 (09: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10:00)
- ⊙ 한국은행: 2022년도 BIS 주관「전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거래금액 부문)」결과 (12:00)
- ⊙ 금융위원회: '22.3분기 공적자금운용현황 (12:00)
- ⊙ 통계청: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12:00)
- ⊙ 한국은행: 2022년 19차(10.12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11월2일(수)

- ⊙ 통계청: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09: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10:00)

11월3일(목)

- ⊙ 한국은행: 2022년 10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 중국 전문가 오찬간담회 (11:40)
- ⊙ 기획재정부: 제4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11:30)
-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BIS 총재회의」참석 (12:00)
- ⊙ KDI: KDI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12:0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워크숍 (13:5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11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개최 (배포시)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분야 제3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배포시)

11월4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날짜 | 시간 | 국가 | 지표 | 기간 | 로이터 전망 | 이전수치 |
|---------|-------|-----|---------------------|-----------|--------|----------|
| 10월31일 | 08:50 | 일본 | 산업생산 잠정치 YY | 9월 | | 4.2% |
| 10월31일 | 08:50 | 일본 | 소매판매 YY | 9월 | | 4.1% |
| 10월31일 | 10:30 | 중국 | NBS 제조업 PMI | 10월 | | 50.1 |
| 10월31일 | 10:30 | 중국 | NBS 서비스업 PMI | 10월 | | 50.6 |
| 10월31일 | 14:00 | 일본 | 건축주문 YY | 9월 | | 17.9% |
| 10월31일 | 14:00 | 일본 | 주택착공 YY | 9월 | | 4.6% |
| 10월31일 | 19:00 | 유로존 | 소비자물가지수(CPI) NSA | 10월 | | 119.30 |
| 10월31일 | 19:00 | 유로존 | GDP 잠정치 YY | 3분기 | 1.9% | 4.1% |
| 10월31일 | 22:45 | 미국 | 시카고PMI | 10월 | | 45.7 |
| 10월31일 | 23:30 | 미국 | 델러스연은 제조업경기지수 | 10월 | | -17.20 |
| 11월1~8일 | 08:50 | 일본 | 외화보유고 | 10월 | | 1,238.1B |
| 11월1일 | 09:30 | 일본 |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치 | 10월 | | 50.7 |
| 11월1일 | 10:45 | 중국 |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 10월 | | 48.1 |
| 11월1일 | 22:45 | 미국 |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 10월 | | 49.9 |
| 11월1일 | 23:00 | 미국 | 건설지출 MM | 9월 | -0.4% | -0.7% |
| 11월1일 | 23:00 | 미국 |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 10월 | 50.4 | 50.9 |
| 11월1~3일 | 23:00 | 미국 | 총 자동차 판매 | 10월 | | 2.900M |
| 11월2일 | 18:00 | 유로존 |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 10월 | 46.6 | 46.6 |
| 11월2일 | 20:00 | 미국 |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 10월28일 주간 | | 201.1 |
| 11월2일 | 21:15 | 미국 | ADP전국고용동향 | 10월 | | 208k |
| 11월3일 | 10:45 | 중국 | 차이신 서비스업 PMI | 10월 | | 49.3 |
| 11월3일 | 19:00 | 유로존 | 실업률 | 9월 | 6.6% | 6.6% |
| 11월3일 | 20:30 | 미국 | 챌린저 해고건수 | 10월 | | 29.989k |
| 11월3일 | 21:30 | 미국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10월24일 주간 | | 217k |
| 11월3일 | 22:45 | 미국 |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 10월 | | 46.6 |
| 11월3일 | 23:00 | 미국 |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 9월 | | 0.4% |

| | | | | | | |
|-------|-------|-----|-------------------------|-----|------|-------|
| 11월3일 | 23:00 | 미국 | 공장주문 MM | 9월 | | 0.0% |
| 11월3일 | 23:00 | 미국 |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 10월 | 56.0 | 56.7 |
| 11월4일 | 09:30 | 일본 |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치 | 10월 | | 53.0 |
| 11월4일 | 18:00 | 유로존 |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 10월 | 48.2 | 48.2 |
| 11월4일 | 19:00 | 유로존 | 생산자물가 YY | 9월 | | 43.3% |
| 11월4일 | 21:30 | 미국 |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10월 | 200k | 263k |
| 11월4일 | 21:30 | 미국 | 실업률 | 10월 | 3.6% | 3.5%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0월31일(월)

- ⊙ 델러스 연방은행, 10월 제조업 서베이 발표 (오후 11시30분)

11월1일(화)

-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결과 (오후 12시30분)
- ⊙ 티프 맥클럼 캐나다은행 총재, 상원 연설 (2일 오전 7시30분)
- ⊙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2일까지)

11월2일(수)

- ⊙ BOJ, 9월21~22일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전 8시50분)
- ⊙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3일 오전 3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3일 오전 3시30분)

11월3일(목)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라트비아 리가 컨퍼런스서 연설
- ⊙ 영란은행, 금리 발표·회의록 공개·통화정책보고서 발행 (오후 9시)
- ⊙ 휴장국가: 일본(문화의날)

11월4일(금)

-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 성명 발표 (오전 9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주최 행사서 공개 강연 (오후 6시30분)
- ⊙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브루킹스연구소 화상 행사서 연설 (오후 11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연준, 4연속 '자이언트 �텝' 인상 전망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11월1~2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75bp 인상할 것으로 널리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인상보다는 연준이 경제 둔화 리스크를 감안해 향후 인상 속도를 줄일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 월가는 연준이 경제지표 부진에 대응해 긴축 속도를 완화하리라는 전망에 랠리를 펼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과도한 긴축으로 고용이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오는 4일에는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0만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달에는 26만3,000명 증가했었다.

⊙ **영란은행도 75bp 금리 인상 전망**

영란은행은 3일 정책회의에서 1989년 이후 최대폭인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이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안 대부분을 폐기한 후 시장의 100bp 금리 인상 베팅은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헌트 장관과 리시 수석 신임 총리가 예산안 발표를 11월17일로 미루면서 영란은행의 경기 전망은 좀 더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영란은행은 11월1일부터 보유 국채 매각을 시작할 예정이다.

⊙ **유로존 10월 인플레이션**

유로존에서는 31일 발표될 10월 인플레이션 잠정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은 근 10%로,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를 낮추기 위해 두 차례 연속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9월 6%로, ECB 목표인 2%를 훨씬 상회했다.

⊙ **호주 중앙은행 25bp 금리 인상 전망**

이달 초 예상보다 작은 폭인 25bp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던 호주 중앙은행이 11월1일 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2.85%로 2개월 연속 25bp 인상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호주 기준금리는 12월에도 25bp 인상돼 연말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10%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발표된 호주의 3분기 인플레이션율이 32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한 가운데 중앙은행이 좀 더 매파적 정책 전망을 제시할 경우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불안과 중국 성장 둔화 우려에 타격을 입은 호주달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30일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좌파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과 우파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될지도 관심거리다.

여론조사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율을 약간 앞서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선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브라질 헤알 등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하고 있다.

올해 헤알은 중남미 통화 중 달러 대비 가장 강세를 보인 통화지만 선거 불확실성에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4% 넘게 절하됐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종합) BOJ, 예상대로 초저금리 유지... 현 회계연도 물가 전망 상향 조정**

도쿄, 10월28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은 27~28일 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초저금리와 도비시한 가이드스를 유지해, 경기침체 우려 속 통화정책 긴축에 나서는 다른 중앙은행들과 반대의 행보를 이어갔다.

새로운 분기 전망에서 BOJ는 2023년 3월 종료되는 현 회계연도 근원 소비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9%로, 지난 7월의 2.3%보다 상향 조정했다.

2023회계연도 전망치도 1.4%에서 1.6%도 올려, 최근 기업들이 가계에 원자재 비용 상승을 적극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신호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물가 전망치 상향에도 불구하고 BOJ는 단기 및 장기 금리 목표치는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정책 가이드스를 유지했다.

또한, 예상대로 단기금리 목표치를 -0.1%, 10년물 국채 수익률 목표치를 0% 부근으로 유지했다.

BOJ는 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 전망은 하방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 물가 전망은 상방이 우세하다"라고 밝혔다.

무토 히로야키 스미토모생명보험 이코노미스트는 "ETF 매입 방법 변경 말고는 통화정책에 변화가 없었고 따라서 서프라이즈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28일 종가 기준)

| 원화 % | 최종 | 주간(%) | YTD(%) | 2021(%) | 달러 대비 % | 최종 | 주간(%) | YTD(%) | 2021(%) |
|---------|----------|---------|---------|----------|------------|-----------|---------|---------|----------|
| 달러 대비 | 1,421.5 | 1.3% | -16.4% | -8.6% | 유로 | 0.9965 | 1.0% | -12.4% | -6.9% |
| 100엔 대비 | 964.3 | 0.4% | 7.1% | +1.8% | 엔 | 147.47 | 0.1% | -22.0% | -10.3% |
| 유로 대비 | 1,417.0 | -0.5% | -4.6% | -1.9% | 위안 | 7.2500 | -0.4% | -12.3% | +2.7% |
| 위안 대비 | 196.08 | 0.6% | -4.6% | -11.1% | 해외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21(%) |
| 한국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21(%) | 다우존스 | 32,861.80 | 5.7% | -9.6% | +18.7% |
| 코스피 | 2,268.40 | 2.5% | -23.8% | +3.6% | 나스닥 | 11,102.45 | 2.2% | -29.0% | +21.4% |
| 코스닥 | 687.63 | 1.9% | -33.5% | +6.8% | S&P500 | 3,901.06 | 4.0% | -18.2% | +26.9% |
| 국내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21(bp) | MSCI APxJP | 432.53 | -1.6% | -31.3% | -4.9% |
| 국고채 3Y | 4.112% | -38.3bp | 231.4bp | +82.2bp | 미국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21(bp) |
| 국고채 5Y | 4.192% | -44.6bp | 218.1bp | +67.6bp | 미국채 2Y | 4.410% | -7.0bp | 368.0bp | +61.0bp |
| 국고채 10Y | 4.167% | -46.5bp | 191.7bp | +53.7bp | 미국채 10Y | 4.010% | -21.0bp | 250.0bp | +59.5bp |
| 국제상품가격 | 최종 | 주간(%) | YTD(%) | 2021(%) | CDS프리미엄 | 최종(bp) | 주간(bp) | YTD(bp) | 2021(bp) |
| 유가(WTI) | 88.38 | 3.8% | 17.1% | +55.8% | 한국 5Y | 65.5bp | 5.5bp | 43.4bp | -0.7bp |
| 금(현물) | 1,642.76 | -0.9% | -10.2% | -3.6% | 일본 5Y | 30.2bp | 2.0bp | 12.6bp | +2.1bp |
| TR상품지수 | 3,430.34 | -1.0% | 2.7% | +24.6% | 중국 5Y | 114.8bp | 2.9bp | 73.6bp | +12.1bp |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